

야생버섯 섭취 중독사고 '주의보'

독버섯과 구분 어려워 이미 섭취해 두통 등 증상 발생시 병원 가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장마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덥고 습한 장마철은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은 1,900여 종이나,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약 400여 종(21%) 뿐이다.

독버섯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띠며,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식물이 자라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이며, 3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 대비 환자 수는 7.2명으로, 이는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이나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나리판대버섯



독우산판대버섯



독흰갈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자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 대비 환자 수는 7.2명으로, 이는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이나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과학적 근거가 없이 민간 속설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며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민간 속설로

는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번개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남아 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섭취해 두통, 복통 등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버섯 발생 시기와 장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지난해 야생버섯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올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버섯이 식용버섯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버섯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느타리, 팽이, 표고 등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재배버섯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여름 정기세일 맞아 'SUMMER 명품대전'

롯데백 전주점, 10일까지 전주점 6층 이벤트홀서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여름 정기세일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전주점 6층 이벤트홀에서 SUMMER 명품 대전을 진행한다.

구찌, 생로랑, 프라다, 버버리 외 해외 유명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와 핸드백, 지갑, 신발 등을 품목별로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60만·100만·200만·300만·500만·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엘포인트 1만5000·2만5000·5만·7만5000·12만5000·2.5만점 적립과 무이자 등 다양한 사은행사도 진행 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김경수 패션팀장은 "MZ세대의 인기 상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로 명품 수요자를 충족시키는 것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여름 정기세일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전주점 6층 이벤트홀에서 SUMMER 명품 대전을 진행한다.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

탄소복합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에서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에서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탄소복합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탄소 복합재 교육은 탄소 소재의 기본구조 및 제조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공정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탄소소재를 적용한 제품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탄소소재의 특성에 대한 기초 교육 이후 4가지 유형의 탄소 복합재 성형 공정을 실습하고, 카본 다이빙 핀 블레이드를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제품제작 과정 전반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핸드레이업 성형공정 △프리프레그 성형공정 △핫프레스 성형공정 △인퓨전 성형공정 등 4가지 탄소 복합재 성형 공정에 대해 각각 실습할 수 있어 탄소소재를 활용한 기술창업 등에 관심 있는 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오재하 단장은 "다양한 탄소 성형 공정 실습 교육을 통해 일반인의 탄소소재 메이킹 활동을 촉진하고, 예비창업자들이 시제품 개발 시 접목할 수 있는 소재의 범위를 확대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복합재 교육은 탄소소재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 홈페이지(www.maker365.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지역 자율형 수출bauer 최대 3000만원 지원

전북중기청, 14일까지 참여 중소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역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2022년도 지역 자율형 수출bauer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전북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별도 트랙을 신설해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수출기회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수·수출초보기업이 많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내수·수출초

보기업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본사소재 전년도 직접수출 실적 0~10만불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 단계별로 내수와 수출초보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최종 선정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Bauer를 지급받아 디자인개발 등 총 13개 서비스 분야 7,500여개 메뉴판에

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은 7월 14일까지 이메일·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지역주력산업의 수출역량강화를 위해 수출bauer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산지유통관리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2년 전북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회장 이영철, 무주농협 상무)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농협의 산지유통관리자는 농협과 조합동시업법인의 판매담당자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에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농산물 유통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이 참석해 전북농협과 함께 농협 및 조합법인의 APC운영과 스마트화를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교육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농협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우수 자원을 활용해 농업인의 더 나은 농업 경영과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철 회장은 "전북농협 산지유통 관리자가 전국 산지유통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산지유통의 초석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협의회 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스마트육 육성, 스마트APC 등 농협의 스마트화 및 유통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며 "그 중심에 산지유통관리자가 있어 세 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지유통의 혁신을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농산업 창업·벤처 성장 지원

농진청, 조달청과 공공 조달시장 진출 협약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6일 본청에서 조달청(청장 이종욱)과 농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관로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진흥청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물 벤처나라 에 등록 후호 상품을 추천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기존 농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시장 진출까지 도울 수 있게 됐다.

현재 농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을 통해 최근 6년간(2016~2021)을 통해 1,766개의 농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추천을 통해 '벤처나라'에 등록되는 우수기술 상품은 지정증서 인증 표시(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분기별 조달



등록 교육, 각종 홍보 행사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국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업 분야 벤처·창업기업 설명회 개최, 품평회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산업 분야의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다시 공공조달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내 청정축산 우수농가 선정

익산군산축협 배리굿팜중앙 등 선정 시상식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제5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전북에선 우수농가로 익산군산축협 배리굿팜중앙(대표 김기진, 돼지), 무진장축협 태주농장(대표 이은주, 닭), 전주김제완주축협 해방농장(대표 정기섭, 한우), 순정축협 인영농장(대표 김재철, 한우)을 선정하고 6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선정된 농가는 전북농협 본부장과 상금 50만 원을 받게 되고 하반기에 열리는 '제5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본선에 전북지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각 부문별로 가축 사육환경, 축산환경, 냄새저감과 분뇨관리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국을 대표하는 우수 축산농가를 선정·시상하는 대회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지역 우수농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선정된 4명의 농가가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정축산 농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북지역에서 제2회 초원축 폐지농장(우수상), 제3회 샘골농장(우수상), 제4회 송원농장(특별상), 무항농장(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제5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전북에선 우수 농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새만금 사업 성공' 응원합니다

새만금청 '새만금 올림이 33' 릴레이 영상 공유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자체, 관계기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새만금을 응원하는 '새만금 올림이 33' 릴레이 영상을 국민들에게 공유해 새만금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올림이 33'은 '새만금의 발전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33이라는 숫자는 새만금의 상징이자 세계 최장인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33km)에서 착안했다.

'새만금 올림이 33'에는 33명의 새만금 지역이 고향인 연예인 새만금 건설 공사 현장 관계자 및 새만금1단 입주기업, 새만금에서 열린 행사 참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 한상환 대변인은 "새

만금 올림이 33 응원 영상은 1991년 방조제 착공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앞두고 더욱 속도를 내길 바라는 모두의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이정현 본부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새만금 올림이 33 릴레이 응원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의 발전'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33명의 릴레이 응원영상은 홍보협약체 기관별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기자